

참전 용사들의 뜻 기리다

남원시, 제69주년 6·25 기념행사

남원시는 25일 그린웨딩타운에서 6.25전쟁에 대한 역사적 의의와 교훈을 상기 시키고 참전 용사들의 뜻과 명예를 기리기 위한 제69주년



남원시는 25일 그린웨딩타운에서 제69주년 6.25 전쟁 기념행사를 가졌다.

6.25 전쟁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환주 시장과 각 기관 단체장, 6.25참전유공자회를 비롯한 안보보훈단체 회원 및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을 기렸다. 또한 6.25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결의문 낭독, 6.25 노래 제창, 만세 삼창과 보훈격려품을 6.25참전유공자회, 전물군경유족회와 고엽제전우회에게 전달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6.25참전 유공자 한 분 한 분에게 인사하며 참전 유공자들의 희생에 대해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며, "시에서는 참전유공자들이 사회적 관심과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호국보훈 정신 계승발전 마련

임실군, 6·25 제69주년 기념식

임실군과 6.25참전유공자회임실군지회는 25일 임실군청 3층 문화강좌에서 6.25참전 유공자회 및 보훈단체 가족, 군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9주년을 맞이하는 6.25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심민군수를 비롯해 임실경찰서장, 보훈단체 및 기관사회 단체장이 참석하여 참전유공자 표창, 기념사, 결의문 낭독 순

으로 개최됐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을 희생하여 나라를 구하신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뜻을 계승하고 남북의 안보정세에 대한 이해와 나라 사랑의 마음을 다시 새기는 한편 후세에게 호국의식을 심어주는 시간이 되었다. 심민 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6.25 발생 69주년을 맞아 조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하신 호국 영령들의 명복을 빌다"며 "보훈단체 회원들의 사기 앙양과 보훈가족들이 예우와 자긍심 고취와 나라사랑 정신 계승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배양주 회장은 "6.25 참전자 대부분이 이제는 80세후반 넘은 고령으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후손들에게 나라사랑의 마음을 일깨우는 좋은 시간이 마련되어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순창 귀농귀촌인들 재능기부

협의회서 집수리·반찬봉사 등 다양

순창군 귀농귀촌인들이 한데 모여 지역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나섰다. 순창군 귀농귀촌협의회(회장 김민성, 이하 협의회)에서 '귀농·귀촌인이 여러분의 불편을 수리해드립니다'란 표어를 내걸고 2019년 재능기부 나눔 사업을 진행해 화제다. 그간 귀농·귀촌인들이 지역민들과 화합에 어려움을 겪으며, 지역내 불협화음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어 이번 재능기부가 지역 화합을 도모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전망이다. 협의회가 갖는 기대가 크다. 최근 협의회 북흥면 지회에서 재능기부 발대식을 시작으로 각 면별 지회에서 간단한 집수리부터 반찬봉사 등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북흥면 지회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6가구를 선정해 토방경사로와 안전 손잡이 설치 공사를 최근 마무리 지었다. 이번 재능기부에 참여한

신동수씨는 북흥면에 귀촌하여 손수 집을 지으면서 집짓기 기술을 익혔고, 지역사회에 재능을 환원하기 위해 지회 회원들과 참여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집수리 사업을 총칭하는 일명 '북흥면 경사로 사업'은 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어 설치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순창군 의원들도 현장을 방문해 칭찬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지역민들의 후한 점수를 받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어 구립면 지회는 마부가 습을 받아 무너지기 일보직전인 구립면 한 농가를 방문해 회원들이 나서서 마부를 견어내고, 전면 보수 공사를 진행했다. 또 실내 화장실이 없어 애로를 겪고 있는 집을 찾아 화장실 공사도 착적 진행했다. 이외에 금과면 지회는 직장 다니는 남성회원이 많아 여성회원 중심으로 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7월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지역 공공시설 유지해야"

남원지역에 공공시설을 적극 유지해 인구유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남원시는 최근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2차 정책자문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책자문위원들은 경찰·법원의 지청·지원 소재지에 교정시설이 없는 것은 전국 4개소라고며, 이들 지역 중 속초·거창은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남원시와 영동군만 아직 교정시설이 없어 인권침해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정시설을 혐오시설로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며, 인구감소로 인한 도시소멸을 걱정해야하는 남원시의 처지를 감안하면 상주직인 200명은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리산 국립공원 전북·전남·경남사무소 3개사무소를 총괄지원하고 기획·운영하기 위해 신설될 기관인 지리산국립공원 본부의 성격이 기획과 지원 등으로 지리산권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시 단위인 남원시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생마을 유류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다수 위원들이 공동주택 건설이나 교통산과 연계한 숙박원, 또는 숙박원과 가족농장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단지 조성 등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로서 활용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청 사격이 아시아 공기총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임실군청 사격팀 각종 전국대회 맹활약

아시아 공기총 선수권 대회 단체 1위... 상반기 총 8개 메달 획득

임실군청 사격이 아시아 공기총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타이완 공기사격장에서 개최된 제12회 아시아 공기총선수권대회에서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한 임실군청 황성은, 강민정 선수가 10M 공기권총 단체 1위와 10M 공기권총 혼성 2위(황성은)를 차지하는 등 각종 대회에서 발군의 기량을 뽐내고 있다. 그밖에도 군청 사격팀은 올해 들어 제9회 전남도지사배 전국사격대회 단체 2위를 시작으로 상반기 7개 대회에 참가하여 개인전 및 단체전을 포함하여 총 8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임실군청 사격팀은 2005년 창단된

임실군의 직장운동경기부로 감독 1명, 여자 선수 4명으로 구성되어 임실군 홍보를 위해 각종 전국대회에 출전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한 4개 전국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심민 임실군수도 "우수한 성적으로 임실군의 명예를 드높인 선수단들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임실군청 사격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수 감독은 "감독 부임 첫 해부터 국제대회에서 선수들이 선전하고 있다"며 "올해는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순창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건고추' 30일까지 신청

순창군이 지난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2019년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 기한이 오는 30일로, 5일 앞으로 다가가 건고추 재배농가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전북도 삼락농정의 대표사업인 이 사업은 그 해 작황에 따라 변동성이 큰 농산물 특성상 재배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농산물 판매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보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순창군의 경우 올 1분기에 양파가 신청 대상 품목이었으며, 올 2분기에 건고추가 해당된다. 품목당 대상면적은 1000㎡부터 1만㎡까지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순창군통합공동법인) 및 지역농협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가 대상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사업 신청서를 배부 받아 출하 약정을 할 순창

군조합공동사업법인이나 지역농협과 계약을 체결한 후 출하 계약서 및 신청서를 오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효율적 농가경영 안정시스템을 구축해 궁극적으로 농가소득 안정을 기대한다"며 "건고추를 재배하는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